

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

KMS, 성공을 향한 기업의 지식관리 전략

세계화와 더불어 규제의 강화, 경쟁의 심화 등 조직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체계적인 지식관리를 통한 조직의 경쟁력 강화와 혁신을 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지식 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한 지식관리시스템(KMS)이 기업 경영의 핵심 요소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것이다.

○ 지식관리시스템(KMS, Knowledge Management System)은 조직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식자원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식을 통합 관리하고 이에 대한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기업은 KMS를 통해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체계적으로 통합·분류하며, 분석·활용함으로써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이를 조직의 의사결정에 반영한다. 최근 들어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지식의 종류도 연구개발 산출물과 같은 전략적인 지식에서부터 세부적인 업무프로세스로 발생하는 노하우에 이르기까지 다양화되고 있다.

조직 혁신 및 경쟁력 강화의 핵심 도구로 자리 잡아

KMS가 조직 경영에 핵심 요소가 되고 있는 까닭은 지식관리가 업무의 효율화 및 생산성 향상과 조직의 가치 증대, 환경 변화에 대한 조직의 신속한 대응과 직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식관리는 조직 구성원간 정보 공유와 협업 마인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이는 곧 효율적인 부가가치의 창출로 이어져 조직을 혁신하고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핵심사항이 된다.

KMS의 효용성이 부각되면서 공공기관을 비롯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전 업종의 규모를 망라해 KMS의 도입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KRG의 2006년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도입 계획 조사에서도 다른 애플리케이션에 비해 그룹웨어 및 KMS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기존에 KMS를 도입한 조직에서의 기능 보강과 업그레이드 수요가 많았으며, ERP(Enterprise Portal), EIP(Enterprise Information Portal), 그리고 EKP(Enterprise Knowledge Portal) 등으로 통합하여 발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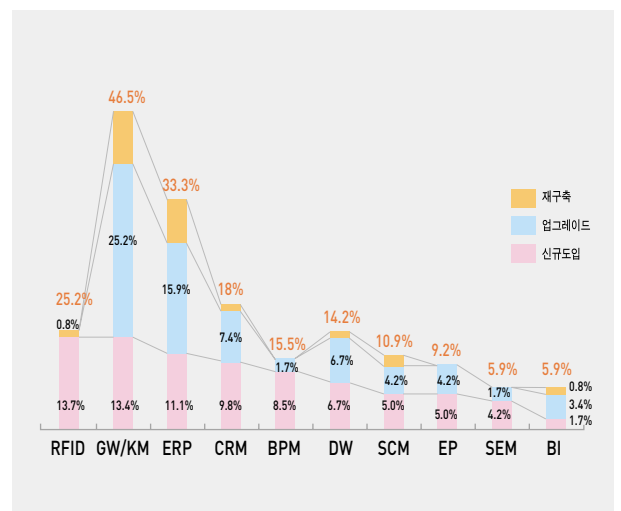
공공기관의 경우 이미 번정부 차원에서 지식 경영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어 있고 지식경영활동 공동체(CoP) 도입 등 지식관리를 통한 업무처리방식의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다. 88개의 정부출연기관은 기획예산처의 경영 평가에 지식경영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KMS 도입에 더욱 적극적이다.

한편, 중소기업으로의 확산도 진행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국가 산업 경쟁력과 연결되며, 이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지식 공유시스템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때문에 중소기업 학습조직화지원사업 을 통해 중소기업의 정보화수준을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지식관리문화 정착이 선행되어야

KMS를 도입했다고 해서 지식관리가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도입보다도 구축 이후의 활용이 더욱 중요한 솔루션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KMS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조직의 문화가 지식관리를 중심으로 바뀌어야 한다. 앞서서도 설명한 바와 같이 지식 관리는 조직 구성원들의 정보 공유와 협업 마인드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강제적이고 기계적인 참여가 아닌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최고 경영자는 지식경영을 구현하고자 하는 확고한 마인드를 가지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조직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하며 이에 대한 조직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도 필요하다.

또한 KMS는 실용적인 관점에서의 접근도 중요하다. 지식관리는 조직의 여타 정보화 솔루션 및 실제 업무, 그리고 프로세스와 밀접하게 연계되고 확산되어야만 조직 혁신 및 경쟁력 강화라는 효과를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들은 KMS가 단순히 지식과 정보의 저장과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는 이유이며, 진정한 지식경영으로 나아가는 기반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다.



벤처, 지식관리시스템 점령

사이버다임(대표 현석진)



기업용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이버다임의 Destiny KMS는 다양한 형태의 기업 내 지식 자산을 체계적으로 통합·관리하는 100% 웹 기반의 지식 관리 시스템이다.

Destiny KMS는 기업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

성을 높이고 의사결정 위험을 최소화해 창의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세계적인 연구조사 기관인 OVUM의 지식경영 프레임워크를 충실하게 따르고 있으며, 문서형태의 지식뿐만 아니라 Q&A, 전문가, URL 등 다양한 지식객체를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KMS에서 제공되는 다양한 지식을 업무 성격에 따라 개인화된 형태로 제공받을 수 있는 'My Portal' 기능과 커뮤니티, 토론 마당 등 다양한 지식 공유 및 전파기능을 제공한다.

또한 시스템 사용 환경에 대한 설정과 수정, 관리자용 시스템 활용 현황 및 시스템 부하, 환경파일 조회 기능, 시스템 통계 등 일반 사용자들이 시스템을 사용하는 데 있어 필요한 세부적 기능들을 설정하는데 필요한 다양하고 편리한 기능을 갖추었다.

온더아이티(대표 김범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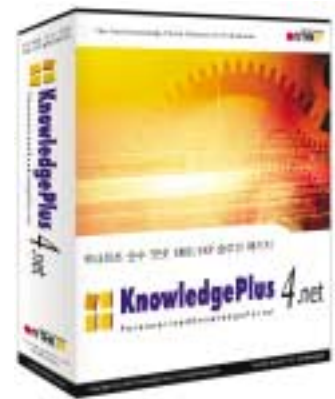
지식경영 솔루션 전문 구축기업인 온더아이티가 개발한 'KnowledgePlus'는 기업 내 분산되어 있는 다양한 솔루션의 통합 기반을 갖춘 패키지형 기업정보포털(KIP) 솔루션으로 조직의 비즈니스 역량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핵심 IT 인프라이다.

다수의 지식사업 수행 경험을 통해 실현 가능한 미래지향적 솔루션으로 신뢰성을 인정받고 있으며, 사용자 중심의 편리한 인터페이스를 추구하고, 강력한 확장성과 보안을 제공하는 포털 아키텍처를 제공한다.

KnowledgePlus는 최신 닷넷 기술을 반영하여 더욱 향상된 속도와 높은 신뢰성을 자랑하며, 포털 인터페이스의 손쉬운 변경으로 개인별 맞춤형 페이지 구성이 가능하다.

그리고 KM(지식경영)의 차세대 기술인 지식기반 프로세스(K-BPM) 엔진 탑재와 KM 기반의 성과측정 방법론을 적용하고 있으며, 체계화된 제품 구조로 인해 운영 관리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다.

고객의 사용 환경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구현·제공해온 온더아이티는 국민은행, 해양수산부, 삼성전기, 한진중공업, LG미이크론 등 100여 곳이 넘는 고객사를 확보 명실상부하게 KMS 시장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



핸디소프트(대표 정영택)

날리리큐브(대표 김학훈)와 함께 프로세스 기반의 BPM과 KMS 통합 모델인 'K*Flow'를 출시했다.

K*Flow는 기업 내 모든 업무를 프로세스로 도출하고 프로세스 단위 업무에 필요한 지식을 연계하여 사용자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유연성과 신속성을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또한 지식 기반 서비스를 통해 업무 생산성을 도모했던 기존의 KMS나 단위 업무 처리 중심인 BPM의 장점을 상호 결합해 사용자가 업무



에 필요한 베스트 지식, 매뉴얼, 전문가 등 양질의 지식을 실시간으로 제공받아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게 했다. 지난해 3월부터 양사 간 공동영업-공동마케팅을 추진해온 핸디소프트와 날리지큐브는

그동안 삼성화재와 교육인적자원부, 평택시청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지식경영시스템 사업을 수주하는 성과를 올려왔다. 특히 노동부는 기존 지식관리시스템이 실제 업무 프로세스와 연계성이 떨어져 K*Flow로 시스템을 변경한 후 노동부의 지식관리시스템인 다우리가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K*Flow를 높이 평가했다. 이 두 회사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 한해 프로세스기반의 BPM과 KMS 통합모델 제품인 K*Flow를 본격적으로 확산, BPM과 KMS의 확산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가온아이(대표 조창제)



기업 내 커뮤니케이션과 정보공유를 위한 일련의 프로세스를 통합 지원해 150여 곳의 고객사를 확보한 가온아이가 만든 'eEKP'는 업무의 성과 및 기업의 업무 방식의 혁신을가지고 올 수 있는 솔루션이다.

선이다.

특히 eEKP는 업계에서 최초로 100% 웹 기반으로 구축되어 사용자의 접근 및 편의성이 높으며 아울러 시스템 간의 연동 표준인 XML 기반으로 구축되어 있어 시스템 간 통합이 용이하다. 또한 상황에 따라 그룹웨어, FDMS, KMS, 포털, 메신저 등을 통합하여 제공하므로 고객의 다양한 요구에도 손쉽게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eEKP는 범용성과 확장성 면에서 뛰어나며 'Web Based' 환경에서 최적의 e-Biz 인프라를 제공하여 경쟁력이 뛰어나다. 또한 모바일까지 그 영역을 확장하여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강력한 효율성을 자랑한다.

에스엔테크놀로지(대표 금교원)



1986년 국내 최초로 웹 기반 그룹웨어 사업을 시작한 에스엔테크놀로지의 'enRiseKM'은 기업 내에 분산되어 있는 정보지식데이터를 통합하여 각 부서 및 개별업무에 적용시켜주는 솔루션이다.

지식가치창출을 통한 기업의 성장 및 풍부한 지식활용기반을 제공하며 지식검색기능과 KM컨설팅, KM방법론을 종합하여 실제업무와 지식경영을 이어준다. 또한 지식등록·검색·승인뿐 아니라 지식 동호회까지 다양한 지식 접근 경로를 제공하여 지식 구축 및 개인 지식 창구로 활용이 용이한 편이다. 지식활동에 따른 지식평가의 기능을 제공해 전문가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지발적 지식 축적이 가능하도록 적합한 모델을 제공한다.

○ 지난 2004년부터 현재까지 국방, 환경, 항만물류분야 등 성공 가능성 및 산업 파급효과가 큰 과제를 중심으로 전자태그(RFID,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시범사업이 추진되어 왔다. 이러한 RFID 시범사업은 관련기업들에게는 '시장을 전제한 기술개발' 노력을 가속화시키고 수요기관에게는 신기술 적용을 통한 프로세스 혁신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중요한 계기를 제공하였다.

확산단계에 진입한 RFID

RFID 산업은 2006년 현재 RFID 기술 및 서비스 상용화를 목적으로 확산단계로 진입하기 시작하는 한편, RFID 기술과 모바일 기기를 결합한 모바일 RFID 시범사업이라는 새로운 서비스 영역을 개척하고 있다.

그간 RFID 관련 사업을 추진해 온바에 의하면, RFID 기술은 무선 주파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 비즈니스 프로세스와 물품의 특성에 따라 그 성과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대표적인 '현장 의존형' 기술이다. 따라서 아무리 정교하게 만든 태그, 센서, 리더라 하더라도 상용화를 위해서는 비교적 상당한 현장적용기간을 요한다는 기술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이 상용화 단계에 일단 진입하게 되면, 모든 공간과 사물에 폭넓게 적용됨으로써 가히 그 시장 규모와 파급효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중요한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바로 이러한 요인으로 수많은 국가와 다국적 기업들이 RFID 기술을 유비쿼터스 시대의 중요한 기반으로 생각하고 또 주목하고 있다.

IT 인프라를 기반으로 새로운 분야 개척해야

그렇다면, 앞으로 RFID 기술의 진화 전망은 어떠한가? 미국의 RFID 전문 시장조사업체인 아이디테크이엑스(IDTechEx)의 'RFID

Forecasts, Players and Opportunities 2005 ~ 2015'에 따르면, 2000년부터 본격 보급되기 시작한 RFID는 대부분 비접촉식 스마트 카드 형태였으나, 2005년도부터는 개별약품과 팔레트 및 박스 단위의 적용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더욱이, 2012년까지 총 소비액 10억달러 이상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되는 RFID는 컨테이너 및 ULD 관리, 좌수 및 가석방자 관리, 테러에 대비한 여권 관리, 축산 및 식품 추적관리, 오진방지 및 환자 관리 등에 적용될 것이다.

이러한 예측은 국내에서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향후 세계 최고의 유무선 인프라 환경과 우리 국민의 뛰어난 IT 수용력을 무기로 선진국 및 기업들이 미처 생각하지도 못한 다양한 응용 서비스 모델을 발굴하고 이를 표준화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 시장을 조기에 선점할 경우, 우리는 'IT 인프라강국'의 차원을 넘어 '유비쿼터스인프라 강국'으로 거듭날 기회를 동시에 선점하게 될 것이다.

사실상 RFID R&D 분야는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 각국에서 일찍이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해 온 상태이다. 하지만 아무리 경쟁력 있는 원천기술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세계 최상의 IT 인프라에 기반한 응용영역에서의 가시적인 성과 없이는 우리의 '초고속 u-스피드'를 따라 잡기 어려울 것이다.

이제

우리는

RFID 보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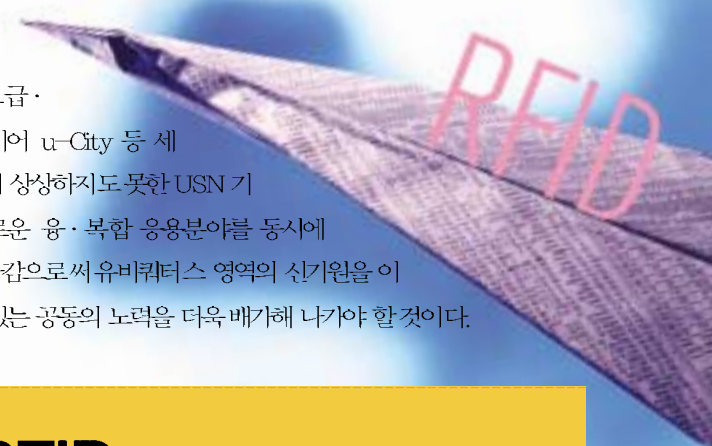
확산에 이어 u-City 등 세

계가 미처 상상하지도 못한 USN 기

반의 새로운 융·복합 응용분야를 동시에

개척해 나갈으로써 유비쿼터스 영역의 선기원을 이

룩할 수 있는 공동의 노력을 더욱 배가해 나가야 할 것이다.



떠오르는 비즈니스의 기회, RFID

차세대 성장엔진의 배대를 이룰 것이라 전망되는 RFID. 이미 미국과 일본 등에서는 상당한 경쟁력을 확보한 상태다.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다. RFID는 이제 막 떠오르는 분야로 세계 최상의 IT 인프라를 보유한 우리나라에게 더없는 기회이자 좋은 도전 대상이 될 것이다.

글_정부만(한국전산원 RFID/USN팀장)

오픈베이스(대표 정진섭)



유무선통합 솔루션 전문기업인 오픈베이스는 솔리데오시스템즈와 지쓰리웨이 컨소시엄을 통해 강남구청에 3억 규모의 모바일 현장행정시스템을 구축·완료했다.

모바일 현장행정시스템은 소음, 청소, 광고물 등 13개 분야별 생활불편 민원

에 대한 생활민원시스템, 공사 현장 조회 및 민원 사항을 처리하는 공사현장시스템, 그리고 제설관제시스템 등에 대해 실시간 업무 처리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모바일 시스템 구축은 RFID의 유비쿼터스 환경을 구축하는 전초전이자, 사전 환경 구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키스컴(대표 한운수)



10년 이상 바코드와 RFID 분야를 이끌어 온 키스컴이 900MHz 대역 핸드헬드 RFID 리더 'Sako-1000'을 출시했다. 이 제품은 PDA를 사용해 쉽게 RFID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Sako-1000'은 무선랜, CDMA 모듈을 탑재하여 네트워크와의 연동을 보다

쉽게 하였으며 사용자의 편의성을 한 단계 높였다.

또한, 대용량 배터리를 사용하여 한번 충전하는 것으로 8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어 장시간 사용이 필요한 물류·유통 분야에 적합한 제품이다.

잉크테크(대표 정광춘)



자체 브랜드 'InkTec'로 세계 120여 개국에 수출하고 있는 잉크테크는 업계 최초로 전자잉크 RFID 태그 인쇄를 상용화했다.

RFID의 본격적인 상용화를 위해서는 RFID 태그 가격이 5센트 이하로 형성되는 것이 필수조건인데 RFID 태그

가격을 형성하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안테나 가격을 낮추기 위해 관련업체들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번 잉크테크의 전자잉크를 활용한 롤투롤(Roll to Roll) 프린팅 공법의 도입으로 대규모 생산이 가능하게 돼, 초저가 RFID 태그 인쇄나 보급을 통해 RFID 조기 상용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세연테크놀로지(대표 손영진)



2001년부터 RFID 적용 노하우를 연구해 온 세연테크놀로지의 주력상품인 'SKY900M'은 900MHz대역의 이동형 리더기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 비해 인식거리가 매우 길며 인식속도 또한 빠르다. 때문에 유통 및 물류분야와 창고관리에 적용되면 획기적인 비용절감

효과와 시간절약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무선랜을 이용해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다. 유비쿼터스 환경에 발맞추어 세연테크놀로지는 앞으로 RFID 제품과 유사한 분야의 기술을 접목하는 통합솔루션 개발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RFID 핵심 벤처 열전

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